

1284년 어느 날 하멜른 시에 이상한 남자가 하나 나타났다. 울긋불긋 괴상한 색깔의 옷을 입고 플루트를 불어 사람들이 파이프 (Pied Piper)라 불렀다. 그는 자기를 쥐를 잡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다. 때마침 하멜른 시는 페스트때문에 엄청난 쥐떼들의 출몰로 온 시민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파이프 파이프는 시민들을 괴롭히는 쥐와 쥐새끼들 몰아내 주겠다고 했다.

마침 시장과 시민들은 쥐떼들로 골머리를 앓던 참이라 지푸라기라도 매달리고 싶던 참이었다. 시장과 시민들은 쥐를 완전히 몰아내주면 1000길더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자 파이프 파이프는 호주머니에서 조그마한 플루트를 불기 시작했다.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쥐와 쥐새끼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쥐들이 전부 모였다고 생각되자 베저강 으로 쥐들을 몰고 갔다. 그리고 코트를 벗고 바지를 걸어 올린 뒤 강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 쥐들이 그를 따라 강으로 뛰어들었고 마침내 전부 수장이 되고 말았다.

쥐에서 해방된 시민들은 뿔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파이프 파이프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쥐를 퇴치한 것을 보고 너무 많은 돈을 주기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50길더만 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 파이프 파이프는 돈을 받기위해 별 짓을 다 했지만 받지 못했다. 그는 몹시 화를 내며 분노에 떨다 결국은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다. 시민들은 드디어 흑을 떼어내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마냥 기뻐했다.

파이프 파이프가 다시 돌아온 것은 6월 26일, 그 날은 ‘세인트존’과 ‘세인트 폴’이 순교한 날로 시민들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흑은 어떤 사람들은 정오라고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요란한 밝은 색깔의 그린 색 옷을 입고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또 괴상한 빨간 모자를 쓰고 전처럼 길에서 파이프를 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쥐와 쥐새끼들이 아니라 애들이었다. 많은 소년 소녀들이 줄을 지어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중 시장의 다 큰 딸도 끼어 있었다. 그는 소년소녀들을 전부 코펜버그 산(Koppenberg Mountain)으로 데리고 올라가 굴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이 사실은 애기를 안고 멀리서 따라가다 일행을 놓치고 돌아온 베이비시터가 마을에 알림으로서 모두 알게 되었다. 모두들 마을 입구로 달려 나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엄마들이 울고불고 후회를 하며 가슴을 쳤지만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아이들은 찾을 길은 없었다. 소문은 삼시간에 온 도시에 퍼졌고 강과 들판을 살살이 뒤졌지만 아이들은 흔적이 없었다.

백삼십 명의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뒤 무리에서 뒤쳐진 세 명이 돌아왔다. 한 아이는 장님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어리 아이여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만 들은 것을 모두 얘기했고 병어리는 간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작은아이는 뒤따라가다가 옷소매가 찢어져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쫓아가니 이미 코펜버그 마운틴(Koppenberg Mountain)굴속으로 사라져버려 불행을 면했다.

애들이 걸어 나간 길을 ‘병겔루스-돌아오지 않는 길(bungelose)이라고 부른다. 사라진 애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병으로 죽었거나 굶주림에 지쳐 시달리다 천둥 번개에 산이 무너지면서 모두 베저 강에 매장되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 하는 이도 있다. 또 굴속을 빠져 나와 트랜슬베니아(Transylvania.)로 가 전쟁에 투입되어 살아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또 다른 이는 파이프 파이프가 죽음의 무도dance of macabre 라는 것, 재앙에서 구해냈지만 그는 다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